# 입석제·수목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

입석제 뒤편으로 박영회·박금희씨 부부의 전원주택이 보인다. 맨 왼쪽 주택은 박씨 부부가, 가운데 집은 남편 박씨의 여동생 부부가 사는 곳이고 오른쪽 집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박씨 부부가 집 옆에 있는 텃밭에서 깻잎을 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담양군 대덕면 박영회·박금희 부부 전원주택

## 3년전 땅 매입 목조주택 3채 지어 친지와 거주
## 낙락장송 수천만원 호가 … 조경비용 2억 들어
## 작년 '전국서 가장 살기 좋은 집'으로 뽑히기도

담양군 대덕면 면소재지에서 우회전 해 자동차로 5분쯤 달리면 입석리 입석마을이 나온다. 곳곳에 수직으로 서 있는 바위가 많아 입석(立石)마을로 불리며 석신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해 마을 이름을 선돌이라고도 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중엽 광산 김씨와 전주 최씨 일가가 난을 피해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됐고 그 역사만큼이나 깊은 당산나무가 입석마을 입구에서 손님을 반긴다.

조그만 고개를 넘으면 마을이 한 눈에 들어오고 왕복 2차로의 조그만 도로 왼편에 그림같은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마을 이름을 딴 '입석제'로 호수라기 보다는 저수지에 가깝다.

도로에서 바라볼때 입석제 건너편에 목조주택 3채가 나란히 들어서 있다. 이 집의 주인공은 박영회(53)·박금희(여·47)씨 부부다. 집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개가 손님을 맞는다.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않아 박씨 부부에게 "개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줄에 묶여 있어 그냥 지나오면 된단다. 위협적인 개를 집 입구에 내놓은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 박씨는 구경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아주 폐쇄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인들이나 미리 연락하고 오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한단다.

박씨의 전원주택에 구경꾼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 집에 들어서면 입석제 옆으로 만개한 배롱나무(백일홍)가 줄지어 서있고 마당 곳곳에는 낙락장송부터 야생화까지 40여종이 넘는 나무와 꽃들이 조화를 이룬채 심어져 있다. 나무 중간중간에 배치된 괴석도 전체적인 조화를 돕고 있다.

전원주택 3채 가운데 박씨 부부가 사는 첫번 째 집 입구에 있는 잘생긴 소나무의 경우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조경비용으로만 2억원 가량이 들었다고 하니 보통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지경이지만 박씨 부부가 조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잘 지어진 목조주택과 조경수, 입석제가 어울려 빚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으로 지난해 SBS에 의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집'으로 뽑혔다.

아내 박씨는 "이곳에 온 사람들은 입석제가 안방같다"며 부러워 하곤 한다고 말했다. 20여년째 광주에서 조경사업을 하는 남편을 도와 아내 박씨도 자격증을 따 직접 조경사업을 돕고 있다.

박씨 부부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전원주택지를 물색하던중 지인의 소개로 와보고 경치에 반했기 때문이다. 2005년 땅을 매입한후 1천여평의 대지를 조성해 차례로 3채의 집을 지었다. 첫번째 집에는 박씨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입주해 살고 있고 두번째 집에는 남편 박씨의 여동생 부부가 지난해 5월에 들어왔다. 원목으로 지은 3번째 집은 아직 주인이 없다.

남편 박씨는 "지인이나 잘 모르더라도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원한다면 내놓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광양에서 고교 교사로 있는 매제(여동생 남편)가 매일 출퇴근 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살기 위해 3학년 담임에서 1학년 담임을 자청했다"고 귀띔했다.

남편 박씨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 건강이다. 광주에서 살때는 약을 달고 살았는데 이곳에 온뒤로는 거짓말처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상 매일 광주를 오가지만 자동차로 20여분이면 도착해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

아내 박씨는 "애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 들어오다보니 교육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뜻 전원생활에 동의해 준 자녀들이 고마워 하루 몇차례 있는 버스대신 승용차로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유희춘 '미암사당'에 보물 '미암일기' 보관

■ 주변 가볼만한 곳

담양군 대덕면에 가면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인 미암 유희춘(1513~1577)의 '미암사당'과 그의 친필 일기인 '미암일기'를 만날수 있다.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미암일기는 선조 즉위년부터 선조 10년에 걸친 11년간의 기록으로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중 가장 양이 많고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임진왜란으로 '승정원일기'가 타버려 선조실록을 편찬할때 마땅한 사료가 없자 조정에서는 미암일기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다.

대덕면에선 또 조선시대 비운의 황태자인 양녕대군 후손들의 자취도 발견할 수 있다. 매산리에 있는 '몽한각'이 그것으로 양녕대군의 증손자인 이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장필수기자 bungy@